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선과 색면을 통한 도시 내면의
조형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조설화

선과 색면을 통한 도시 내면의
조형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 정 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조설화

인 준 서

조설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작업한 본인의 작품 주제인 ‘도시의 내면’을 중심으로 형성 배경과 과정을 통해 내용과 조형적 측면을 분석하고 서술하였다.

현대 도시의 급속화된 성장과 문명의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공간과 생산적인 환경을 가져다주었지만 기계화되고 획일화된 도시로 변하는 것을 피하지는 못했다. 본인도 유년 시절 동네의 자연적인 모습이 옛 특색을 잃고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모습이 낯설고 삭막한 풍경으로 다가왔다. 주변의 자연은 친화적 관계를 상실하고 도시 속에서 소외되어 고립된 존재로 남아 있게 되었으며 현재도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고독과 불안의 요소를 지닌 도시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고 우리가 생존하는 장소이다. 이렇듯 본인은 도시를 통해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느끼고 이를 토대로 화면 안에 도시의 특성과 내면을 선과 면, 색으로 시각화하여 본인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공간과 미술이 만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개념을 알아보고 이러한 작업이 단순화된 형태와 색으로 구현되면서 심리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사회의 정형화된 도시의 특징과 기계화와 산업화된 도시 내부를 심리적인 측면으로 분석하고 공간구조를 조합과 변화의 과정으로 나타내어 그 시대와 도시 내면의 모습을 연구하였다. 이는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작되었던 작품들을 검토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작품 분석을 통해 도시를 조형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관객으로 하여금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위축된 심리를 위로

하고 복잡하지 않은 밝은 풍경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에 세워진 건물들의 차가운 공간이나 딱딱한 시각적 외형만이 아닌 다양한 내면의 모습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3
1) 도시의 이중성	3
2) 기하학적 도시풍경 이미지	6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7
1) 선과 면 -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진 도시공간	7
2) 색을 통한 도시표현 - 강렬한 원색과 보색의 조화	8
3) 도시 건축구조를 통한 화면구성	10
3. 작품 분석	12
II. 결론	27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Space-time 2>, 22.7x15.8,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 2] <Space-time 5>, 24.2x33.4,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 3] <Space-time 4>, 27.3x27.3,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 4] <Space-time 3>, 22.7x15.8,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 5] <Space-time 1>, 37.9x45.5,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 6] <Transfer 1>, 110x50cm,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 7] <Transfer 3>, 143.5x55.5cm,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 8] <Spring Symphony>, 112.1x162.2cm acrylic on canvas 2018
- [작품 9] <Summer Symphony>, 112.1x162.2cm acrylic on canvas 2018
- [작품 10] <Thermal Power Station>, 89.4x130.3cm, acrylic on canvas, 2018
- [작품 11] <블루교향곡 제1악장 Taj Mahal>, 70x165cm, acrylic on canvas,
2017
- [작품 12] <LaLa>, 72.5x52cm, acrylic on canvas, 2017
- [작품 13] <Construction 1>, 117x95cm,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 14] <Construction 4>, 116x79.5cm, acrylic on canvas, 2017
- [작품 15] <Between the walls 1>, 33.4x24.2cm acrylic on canvas 2018
- [작품 16] <Between the walls 2>, 33.4x24.2cm acrylic on canvas 2018
- [작품 17] <Between the walls 3>, 33.4x24.2cm acrylic on canvas 2018
- [작품 18] <Between the walls 4>, 33.4x24.2cm acrylic on canvas 2018
- [작품 19] <Between the walls 5>, 33.4x24.2cm acrylic on canvas 2018

도 판 목 차

- [도판 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757909&memberNo=899848> , 동피랑 마을
- [도판 2] 성북동 공사현장
- [도판 3] 남가좌동 공사현장
- [도판 4] <Construction 1>, 117x95cm, acrylic on canvas, 2016
- [도판 5]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49399
 ,당인리발전소
- [도판 6] <Thermal Power Station>, 89.4x130.3cm, acrylic on canvas, 2018

I. 서 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리적 장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며, 감정을 불편하게 하는 장소는 병을 키울 수 있다.¹⁾ 도시환경은 문명의 발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인간의 필요성에 따라 구축한 도시환경은 현재를 대변하는 장소이며 많은 불거리가 있지만, 개인의 성격에 따라 도시의 시각적 화려함이나 편리함보단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공간은 실생활에서 접하는 환경에 따라 인간의 정서도 변화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큰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나 건축물들 안에서는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풍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힐링공간을 조성하기도 하고 녹색 휴식, 재생공간 등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심신 수양을 돕는 치유적인 장소는 인간의 정서 함양과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본인도 도시에서의 외로움, 삭막함으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민하였고, 공간의 환경이 현대인의 정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본인이 도시 공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이며 작업을 통해 도시에서 경험한 내적 감정을 표출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의 이중적인 내면을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구성한 도시 이미지를 분석한다.

본론의 1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적 전개’ 로써 도시 공간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이중성과 본 작업 안에서의 도시 공간을 선과 색면, 기하학 형상으로 표현한 내면적 이유를 서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전개’ 로써 본인의 작품에서 조형적 특성을

1) 에스더M. 스텐버그,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더퀘스트, 2013, p.44

‘선과 면 -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진 도시공간’, ‘색을 통한 도시표현 - 강렬한 원색과 보색의 조화’, ‘도시 건축구조를 통한 화면구성’으로 나누어 세 가지 표현방법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작품 분석’에서 작업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제작 의도와 조형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도시의 내면에 대한 개인적 주장을 밝히고, 이에 따른 학문적 성과와 제작과정의 아쉬움과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1) 작품 발상의 동기- 도시의 이중성

도시는 현재의 생활환경이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자본주의의 발달은 엄청난 인구를 도시로 몰려들게 해 거대도시의 등장을 가속화시켰다.²⁾

본인은 청소년기까지 경상남도 거제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인구는 25만 명이 넘는 소도시이다. 본인의 어린 시절 풍경은 낮은 건물로 이루어진 마을과 자연 그대로 보존된 모습이였다.

동네 분위기는 조용하며 정적이고 향토적 정취가 담겨있다. 하지만 20살 이후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풍경을 접하게 되었다. 서울의 대도시에서는 거대한 건물과 화려한 네온사인, 자동차들이 다니는 수많은 도로, 바쁘게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산업사회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문명으로 우리는 편리함을 얻었지만 현재의 발전이 본인에게는 어색하고 삭막한 풍경으로 다가왔다. 도시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콘크리트로 둘러 싸여진 답답한 공간, 상업적 시각 이미지의 무차별한 공격, 인간관계 단절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도시 공간은 인간 소외를 낳는 배경이

2) 최태만, 「미술과 도시」 열화당, 1995, p. 5

된다. 인간의 유전형질은 삶의 조건에 따라 변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은 성장하는 물리적·정신적 환경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사람 몸의 생리학적 불안정성, 즉 사람이 처해있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육체적·심리적으로 비위생적이고 오염된 환경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해친다.³⁾ 빠르게 도시화가 되는 현상은 본인에게도 어색하고 낯설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인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삭막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일상에 쫓기고 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삶의 전쟁터와 같이 느껴지는 공간이 곳곳에 존재하고 우울한 분위기의 회색 도시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문명과 기술의 발전은 웅장하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고 고독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도시는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 변화하고 발전해간다. 또 경제, 사회구조의 결합으로 다른 도시들과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여 공생관계가 되고 문화발전 성장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 작업에 앞서 본인은 그러한 공간을 벗어 날 수 없고 삶의 현장이자 생존해야하는 장소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래서 작업 안의 도시 풍경을 통해 관람자에게 공감되는 이미지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도시의 내부 구조를 통한 골조연구가 그것이다. 도시의 외관 덩어리 보다 내적인 요소에 주목하여 건물 속에 있는 기초구조로 공간을 표현했다. 건물은 인간이 만들어 낸 산물로 시대, 역사에 따라 변화하고 용도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자연이 점차 사라지고 인공재가 발달한 현재의 도시는 인공건축물로 둘러 쌓여 있다. 본인에게 건물은 삶의 그림자처럼 일상의 척도를 나타내는 매개물로,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다. 작업 안에서도 실제 건물 외형이나 디자인에 근거를 두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 속에 담긴 감정이나 가치를 드러내고 싶

3) (최인숙의 파리와 서울 사이)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하는 까닭,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3121>

었다.

둘째, 선과 면, 특히 채도가 높고 보색계열의 다양한 색을 통해 차갑거나 인공적 풍경이 아닌 따뜻한 추억과 진솔한 흔적이 조화로운 도시 내면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인은 유년 시절을 보낸 거제도 근방에 있는 통영 동피랑을 자주 놀러 다녔다.



[도판 1]

동피랑 마을은 통영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중앙시장 뒤쪽 언덕에 있는 마을로, ‘동피랑’이란 이름은 ‘동쪽 벼랑’이라는 뜻이다.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을 따라 강구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동피랑 마을에 오르면 담벼락마다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가 눈길을 끈다.⁴⁾ 그동안 본인의 감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 한 것은 차갑고 딱딱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었다. 그런데 동피랑 마을의 화사한 색채의 벽화마을을 보면 절로 마음의 치유가 되는 느낌이었다. 이로부터 본인의 작업에는 색이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색채를 본인의 심상을 바탕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술한 두 가지 측면은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도시 내면을 그리

4) 네이버 지식백과, 동피랑 마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91907&cid=40942&categoryId=38271>

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도시의 복잡함과 외로운 감정을 넘는데 큰 역할을 한다.

2) 도시 풍경 속 기하학적 표현 반영

많은 매체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산업 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전된 기술로 인해 획일화되어간다고 말한다. 현대 기계문명의 대량 생산의 가능성은 인간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데 자연은 점점 좁아지고 인간의 편리함에 맞는 구조물이 늘어나면서 반복적이고 규격화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도 패션, 문화 등에서 미니멀하고 조작성에 편리하지만 몰개성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개성 없는 문화의 변화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습에도 영향을 끼친다. 현대인들의 생활환경은 비슷한 건축물, 공산품, 무한으로 뻗어있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이러한 인공적인 물질들은 다각형의 기하학적 형상을 지니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수직 수평의 구조와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상들도 앞서 서술한 현대 풍경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의 건축적, 공학적 이미지에서 차용하고 유추한 것이다.

르 꼬르뷔지에 (LeCorbusier , 1887~1960)의 말에 따르면 “기계에 의한 미적 창출은 형적 요소의 단위가 역시 ‘기하학’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입방체, 원통, 각추 등의 초원적 기하 형태이다.” 라고 하였다.⁵⁾ 기하학 형상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사회 속 모습을 만족시키는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의 정밀성은 보다 직접적으로 자연의 숨겨진 모습을 들추어 묘사한다. 자연의 숨겨진 모습들보다 사실적인 양식들은, 물질적인 사물과

5) blog.naver.com/kuje4989/140049861485, 르꼬르뷔지에가 30세일 때, 파리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그의 스케치 습작 옆에 써 놓았다.

사건에 나타나는 그것들의 표명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표현된다.⁶⁾ 실제적인 도시 형상보다 기하학적 형태인 공간 표현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의미를 내포한다. 기하학적 형태에서의 모호함 없는 간결한 형태는 기계를 연상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기계 사회라는 것을 암시한다. 기하학적 형태나 기계 사회가 낳은 몰개성과 감정의 부재가 역기능이라면 본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주제의 도시공간은 건축에도 새로운 정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르 꼬르뷔지에의 말처럼 순기능을 하는 도시와 문화 나아가 본인처럼 현시대를 어둡게 보는 관객을 위해 재구성하려는 의도이다.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 선과 면 -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진 도시공간

선은 기하학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을 선이라고 정의한다. 선의 묘한 특징은 암시성에 있으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의 정서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⁷⁾

선 자체로서도 생동감이 있고 미적 즐거움이 있어 본인의 감정에 따라 내면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선은 기하학적인 조형요소 뿐만 아니라 자기표현의 수단이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선과 면의 표현은 ‘건물의 골조’로부터 시작되었다. 건물을 보면 외벽이 콘크리트나 유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공사 중인 현장을 보면 뼈대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도시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유기적 관계에 있는 건물과 연관시켜 건물 속에 있는 골조들로 도

6)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1996, p.143

7) 데이비드 A. 라우어, 「조형의 원리」 예경, 1996, p.106

시 풍경을 나타냈다. 이렇게 나의 작업에서 선과 면은 ‘건물의 골조’ 이자 ‘내적 표현’의 수단이다. 캔버스에서는 도시의 이미지를 면 분할로 하고 건물들 사이에 골조 구조나 수직, 수평 사선을 그려서 도시 속의 오브제들을 조화롭게 연결해 준다. 면으로만 이루어진 딱딱한 작품에 활기와 리듬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선과 선이 모여 새로운 공간이나 경계를 만들기도 한다.

본인은 작품에서 건물 공간들이 수직 수평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몬드리안은 각 상세한 것들 안에 숨어 있는 기본 법칙 자체를 표현하기 위하여 상세한 것들을 계속해서 단순화 시켰다. 그의 그림들은 이러한 단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관성 있는 단계를 보여준다. 큐비즘을 거쳐, 짧은 수직·수평선의 교차로 이루어진 ‘+·-’의 구성들, 그리고 나서 채색된 사각형들로 된 구성들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수직·수평선과 3원색으로만 이루어진 작품들에 도달하게 된다. 수직·수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몬드리안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정확성의 개념이었다. 정확성만이 오직 지각된 물체의 모호한 형태들을 포함하지 않는 엄격한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⁸⁾ 몬드리안 연구의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수직·수평요소는 기본적인 균형을 만들어내고 보편적인 조화를 형성한다. 보여지는 것 이외에 다른 세상에 대한 깊이를 표현하고자 했고 수직과 수평을 통해 단순화시켜 충분히 생각할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또한 중립적인 존재가치를 가져 순수한 도시 내면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한다.

2) 색을 통한 도시표현 - 강렬한 원색과 보색의 조화

색채는 활력을 주기도 하고, 차분하게도 하며, 표현하기도 하고, 충격을 주

8) 전해숙, 「몬드리안 그림에 있어서의 수직 수평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기도 하며 인상적이기도 하다. 또한 문화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며 상징적이다. 색채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일상을 장식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에 미적인 요소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다.⁹⁾

본인의 작업에서 도시공간의 색은 도시를 대변하는 채도가 높은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도시 속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드러내고 도시변화에 상실한 내면의 심리를 극대화하는 의도이다. 그리고 원색 중에서도 주로 난색을 이용하여 따뜻하고 낮은 도시와 친근한 기분이 들게 한다. 건물의 특성상 한색을 사용할 때는 난색도 함께 들어가서 색채의 공간효과를 준다. 일부 색채들은 본래 ‘가까움’ 또는 ‘뭉’의 성질을 갖고 있다. 밝은 파랑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따뜻한 색채들은 명도와 상관없이 진출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¹⁰⁾ 이 효과로 한색 위주로 채색해도 난색으로 인해 유연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작품에서 빨간-녹색, 파란-노란 등의 급격히 차이나는 보색대비의 조합을 자주 사용했다. 보색대비는 (아주 조금이라도) 보색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색이 함께 사용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이미 다른 두 색상 간에 차이를 극대화하고 발견되지 않았던 색상을 눈에 띄게 만드는 힘이다.¹¹⁾ 시각적으로는 강한 인상을 주지만 색의 조화로 하나의 덩어리로 응집되는 보색의 영향으로 도시들은 개성이 있으면서 우리가 평온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또한 생동감 있는 색들의 건물들은 현대인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성격,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균형을 이루고 화합이 되는 관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인은 색의 어울림과 대조됨을 반복하여 유연하고 온난한 분위기를 ‘도시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면적을 채색할 때는 한 가지 색과 톤(tone)으로 채우는 방식과 그라데이션

9) Linda Holtzschue, 「색채의 이해, 제4판」 시그마프레스, 2015, p. 1

10) 위의 책 p.109

11) 위의 책 p.97-98

(gradation)¹²⁾ 기법을 사용한다. 한 가지 색과 톤으로 채색할 때는 강렬한 색으로 시선 집중이 되고 작업에서 건물의 외곽을 건축적 요소를 단순화시킨 표현이 잘 드러난다. 그라데이션(gradation)으로 색감을 입힌 면적은 자연적 요소나 공간감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된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색과 감정의 관계는 우연이나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일생을 통해 쌓아가는 일반적인 경험, 어린 시절부터 언어와 사고에 깊이 뿌리 내린 경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색과 감정의 관계는 심리학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다.¹³⁾

3) 도시 건축구조를 통한 화면구성

본인이 주변에서 자주 목격했던 재개발과 건물의 공사들로 도시는 규모가 크게 변화되어 낯선 인상을 주었고, 그 기억이 작품 속에 내재 되었다. 주된 이미지는 공사현장, 건물, 건축 부자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잡지, 책, 인터넷으로 수집하여 사용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건축구조의 화면 구성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건축물 속 골조를 통한 도시 구성이다. 도시 건축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건축물의 부분적인 골조, 단순화시킨 건축적 기호와 형식의 형태를 중심으로 사용하여 화면을 연출하고 구성한다.

12) 그라데이션(gradation): 색채나 농담이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으로 점차 옮겨지는 것으로, 농담법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그라데이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17811&cid=50335&categoryId=50335>

13)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예담, 2002, p.33



[도판 2]



[도판 3]



[도판 4]

위의 [도판 2, 3]의 사진은 본인이 공사현장을 직접 찍은 사진들이다. 건축물을 시공하는 모습에서 각각의 구조물을 이루는 골조들을 볼 수 있는데 골조는 건물의 내면에 존재하는 뼈대이다. [도판 4]와 같이 건축물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한축으로 뼈대와 같은 직선과 면을 사용해 평범한 외관의 건물 덩어리가 아닌 내적인 요소를 지닌 건물을 짓고 이를 전체적으로 나타내어 나만의 도시를 나타내고자 했다.

둘째, 건축물의 표면을 단순화시켜 화면의 틀을 구성한다.



[도판 5]



[도판 6]

[도판 5]는 당인리 원자력발전소의 사진이다. 발전소 건축물 외형의 모습을 차용하여 [도판 6]와 같이 선과 면으로 단순화시켜 도시 공간을 나타낸다. 선과 면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순수한 형태의 본질을 보여주고 간결한 표현 속에 명확함을 주고 강한 호소력을 주고자 노력했다. 특히 선과 면 외에도 단순하지만 조화로운 공간을 위해 색의 선택도 매우 중요했다. 청색과 노란색의 대비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보색인데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작업 전반에 사용된다. 또한 외관과 내면의 합의를 끌어내도록 화면의 분할에도 신경 쓴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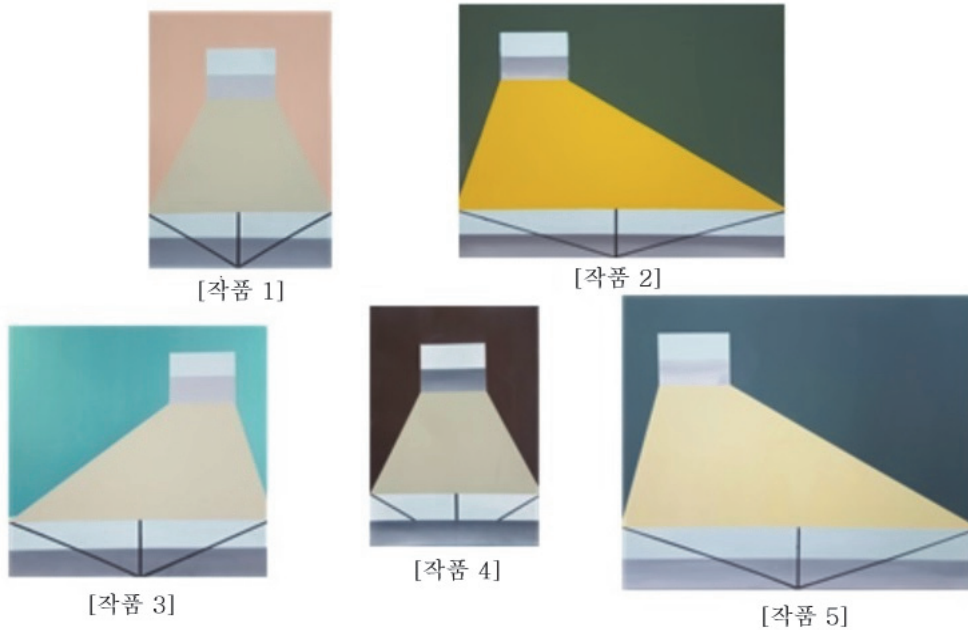
3. 작품 분석

본인은 도시 내면의 공간을 제작하면서 현대 사회 속에 결여된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풍경을 연출하고자 했다. 콘크리트의 회색빛, 차가운 통유리로 구성된 도시는 우리에게 답답함과 억압의 개체로 느껴질 수 있기에 본인의 조형 형식으로 친숙하고 현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구성하였다. 작품은 공간 구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인공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간 구성, 두 번째는 특정 장소의 재구성, 세 번째는 건물 안의 내면 구성이다.

1) ‘인공과 자연이 조화로운 도시 공간’

본인이 도시에 생활하면서 삭막하다고 느낀 것 중 하나는 자연과 교감을 잃은 것이다. 자연이 점차 사라지고 인공 구조물들이 생기는 모습이 낯설게 보이고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

각했다. [작품 1, 2, 3, 4, 5, 6, 7, 8, 9]는 현대 도시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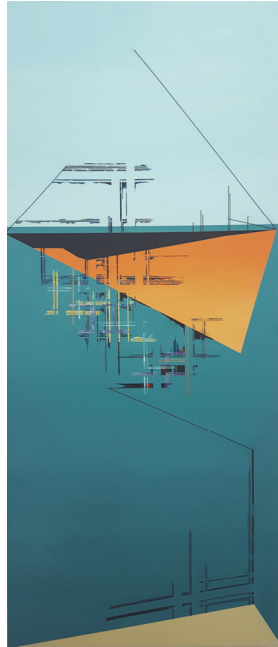


- [작품1] Space-time 2, 22.7x15.8,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2] Space-time 5, 24.2x33.4,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3] Space-time 4, 27.3x27.3,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4] Space-time 3, 22.7x15.8, acrylic on canvas, 2016
- [작품5] Space-time 1, 37.9x45.5, acrylic on canvas, 2016

[작품1, 2, 3, 4, 5] 은 창문(window)시리즈이다. 사람들은 규격화된 도시 속 인공물에 갇혀서 외부와 소통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본인은 창문(window)시리즈를 제작하여 실외에 있는 자연과의 소통하는 것을 희망했다. 창은 건축물에서 안과 밖을 연결하는 부재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창을

이용해 안과 밖을 연결해서 하나의 공간을 연출한다. 창문 밖의 풍경은 수평선의 요소를 넣었는데, 수평선은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되는 선이다. 관람자들은 창문 밖의 수평선을 보면서 평온을 되찾고 도시에 지친 마음을 치유해 주기를 갈망하였다. 이렇게 자연과 인공도 함께 존재하는 공간을 나타내고자 했고 검은 사선이 벽의 바닥과 밑에 있는 수평선 풍경을 이어주면서 모든 분할된 면들이 연결되는 효과를 준다.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창문시리즈는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했다. [작품1]은 베네치안 로즈(Venetian rose), [작품2]는 올리브 그린 딥(Olive green deep), [작품3]은 터퀴스 블루(Turquoise blue), [작품4]은 카민레드(Carmine red) 와 블랙(Black)을 혼합하고, [작품5]는 그린블루(Green blue) 올리브그린 딥 (Olive green deep)색상을 혼합해서 나타냈다. 이는 밖에 있는 수평선과 동화되게 하고 벽 색상만 두드러지지 않도록 했다.

본인의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일한 과정으로 첫 단계가 진행된다. 첫 번째로 평평한 화면의 밑바탕을 준비한다. 젯소를 여러 번 올리고 사포를 갈아 고운 캔버스 표면을 만든다. 그다음은 화면 분할한 면을 아크릴물감으로 칠한다. 아크릴물감(Acrylic painting)은 에스테르(ester) 수지를 재료로 만들어진 물감이다. 건조하고 인공적인 성분이어서 건축물 형상을 표현하는 본인에게 알맞은 재료이다. 분할된 면을 칠할 때는 칠하는 면 주위를 마스킹테이프(Masking tape)를 붙여서 면 밖으로 물감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 테이핑의 차단 효과로 칼같이 떨어지는 화면과 색을 분리해줘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하학적 도시 구조를 잘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아크릴물감을 계속해서 얇게 쌓아 올리면 캔버스에 착색된 색상은 부드러우면서도 평온하며 여러 번 쌓아서 무게감이 생기고 단단해지고 관람자들이 작품을 보는 시선도 벽 사이의 창문으로 향하여 수평선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자 한다.



[작품 6] Transfer1, 110x50cm, acrylic on canvas, 2016

[작품 7] Transfer3, 143.5x55.5cm, acrylic on canvas, 2016

[작품 6], [작품 7]는 인공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을 선과 면으로 단순화시켜 나타내었다. 현대 도시를 보면 건축물과 창문, 거리 등의 풍경들은 차갑고 날카로운 직선의 구조로 되어있다. 화면에서 선은 인공 도시 이미지를 생각하며 표현했고 현대 도시 속에 이루고 있는 건축물, 도로, 현대인의 내면을 함축하였다. 선과 달리 큰 면적으로 이루어진 면들은 산과 바다 형상을 갖춘 자연적인 요소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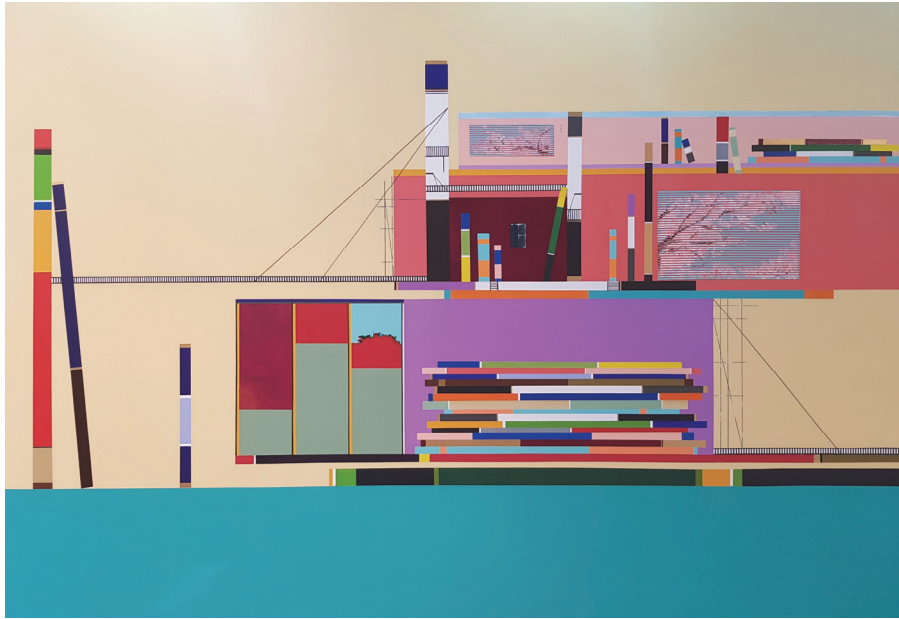
제작과정에 있어서 먼저, 캔버스는 정형화된 크기가 아니라 가로는 짧고 세로는 긴 형태인데 이는 현대 도시의 모습이 고층빌딩들로 인해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확장된 이미지를 연상하며 깊이의 효과를 일으키고자

한다. [작품 6]는 배경에서 두 개의 면인 바다와 하늘로 나누었는데 바다는 터퀴스 블루(Turquoise blue)의 청량한 색상으로 칠했고 하늘은 스카이 블루 라이트(Sky blue light)로 나타냈다. 중간의 산 형상은 블루 톤의 배경과 보색 관계가 있는 오렌지(Azo orange) 색을 사용하여 서로의 색을 명료하게 만들고 오렌지 색상이 심리적인 활력감과 안정감, 희망적인 긍정적 효과가 생겨 살아있는 자연을 활기차게 나타내었다.

건축물을 단순화한 선들은 대체적으로 자연과 상반되는 딱딱한 검은(black) 색을 바탕으로 하고 건축물이 생성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 곳곳에 레몬(lemon)색, 스카이 블루 라이트(Sky blue light), 라이트 바이올렛(light violet)의 파스텔 계열 색을 찍어서 표현했다. 선을 그릴 때는 표현할 곳에 라인 테이프를 겹겹이 붙이고 그 사이에 붓으로 색을 넣었다. 물감이 다 마르고 테이프를 제거하면 선이 생기고 물감이 뭉친 곳은 두께감이 형성된다. 두께가 형성되면서 단조로운 선들 사이로 힘이 생기기도 하고 인공건물의 무게감이 나타난다.

[작품 7]도 [작품 6]와 비슷한 과정으로 제작되었는데 색을 달리해서 자연풍경이 인공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작품 7]은 화면에 블루 계열색을 사용해서 원초적인 바다의 느낌이 났지만 [작품 6]는 배경에 화이트(white)와 카민 레드(Carmine red) 색상을 사용해 인위적인 풍경과 중심에 자연 모습의 산을 보색 관계로 대조적이면서 조화로운 화면을 구성했다. 본인은 보통 매트한 아크릴 물감을 쓰는데 화면의 중심에 있는 산 형상은 유화 물감에 린시드유(70%)+테레핀유(30%)를 섞어 색 면을 칠함으로써 생기가 있는 자연을 나타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 선=인공과 면=자연은 작품 속에 조화롭게 어울려져 도시 속에 공존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작품 8] Spring Symphony, 112.1x162.2cm acrylic on canvas 2018



[작품 9] Summer Symphony, 112.1x162.2cm acrylic on canvas 2018

[작품 8, 9]는 계절에 따라 자연환경이 바뀌고 그에 따라 도시 풍경도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사람들은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으면서 감정 기복이 생겨 ‘봄을 탄다.’, ‘가을을 탄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계절이 도시의 환경에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증에서 비롯하여 이 작업을 시작하였고 본인의 조형 언어로 재구성된 계절의 도시가 현대인이 공감되는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했다. 기본적으로 지상과 땅의 두 면으로 나누고 도시의 형태는 평면의 안정적인 건물 형상을 구현했다. 건물 이미지에 다수의 창문이 존재하는데 이는 건물에서 내·외부가 연결되는 문을 이용해 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자연의 이미지로 인해 색 면으로 이루어진 지루한 공간 속에 활기찬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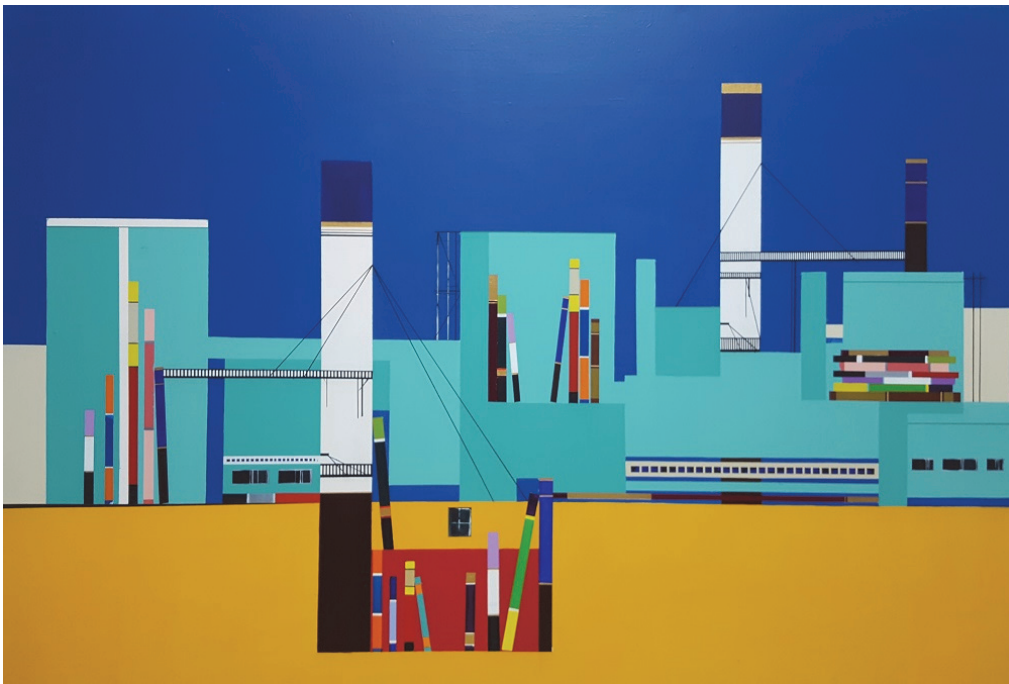
[작품 8]은 사계절 중 봄을 나타내면서 성장하는 도시를 암시한다. 봄의 시작은 싹이 트고 새싹이 자라나고 꽃이 피는 단계로 떠오른다. 배경의 하단은 큰 면적으로 터콰스 블루(Turquoise blue)으로 칠해 도시 안의 녹지를 나타내면서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상단의 배경은 네이폴즈 옐로(Naples yellow)와 화이트(White)를 혼합해 파스텔 톤으로 칠했다. 건물들도 봄에 어울리는 핑크, 보라계열의 파스텔톤을 사용했다. 건물 안에는 문이 존재하는데 위에 있는 두 창문은 스카이 블루 라이트(Sky blue light) 색 물감으로 창문 전체를 칠하고 그 위에 화이트와 핑크색으로 붓으로 찍어내서 멍멍한 형상이 나타나게 한다. 물감이 다 마르면 그 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간격 0.5cm 정도 남겨 일렬로 붙이고 건물색상으로 칠한 후 테이프를 제거하면 블라인드 커튼의 효과가 생겨 창문의 이중성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구성과 풍경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작품 9]은 사계절 중 여름을 나타내면서 상쾌하고 열정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채도가 높고 서로 보색 관계가 있는 터콰스 블루(Turquoise blue)-

피롤 레드(Pyrrrole red)를 배경에 사용했다. [작품 8]과 면 분할로 나타낸 도시 형태의 구조 맥락은 비슷하다. 여름의 계절 차이를 주기 위해 창문 속 자연은 푸른 숲과 보랏빛 보테니컬(Botanical)을 나타내어 시원한 풍경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계절의 온도에 따라 도시의 공간도 변화되어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특정 장소의 재구성

[작품 10, 11, 12]은 특정 장소를 모티브로 공간 구성을 했다. 다른 작업들은 본인이 갈망하는 도시 내면의 공간을 구축했지만 [작품 10, 11, 12]은 장소성이 있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조합해서 그 장소의 도시 내면을 나타냈다.



[작품 10] Thermal Power Station, 89.4x130.3cm acrylic on canvas 2018

[작품 10]은 화력발전소라는 인공건축물을 나타냈다. 화력발전소는 현대 도시발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인공물이면서도 화력발전소의 배출에너지로 인해 대기오염 영향을 미치는 주범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건물이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질적인 존재를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연출했다. 화면에서는 지상과 지하로 크게 두 면으로 나누었고, 발전소의 건물 몸통은 사각형 모양으로 분할하여 평면화시켰다. 건물 안에 위치한 터빈, 발전기, 수관 등의 요소들도 기하학 형상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했다.

건물은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내면이 보이게 단면화를 했는데 이것은 발전소 속에 있는 활력적인 요소들을 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발전소의 외벽은 보통 연회색의 무채색 계열이지만 작품에서 건물표면은 터퀴이즈(turquoise green)색상으로 표현하여 활기찬 기분이 들고, 배경은 코발트블루(Cobalt blue)와 옐로우 딥(yellow deep)의 보색 관계가 있는 색상을 사용하여 서로 충돌하며 에너지를 더 발산하는 효과를 낸다. 굴뚝은 흰 캔버스 그대로 비워놓아서 색면으로 채워진 답답한 화면에서 숨통이 트이게 했다. 건물 내면에 있는 기하학적 요소들은 에너지의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채도가 높고 다채로운 원색을 사용했다. 또한 화면에 사선과 수직선을 넣어 개체들을 서로 연결하고 발전소라는 위엄 있는 공간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선과 면으로 단순화하여 조화롭게 구성한 발전소는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건축물로 보이고자 한다.



[작품 11] 블루교향곡 제1악장 Taj Mahal, 70x165cm, acrylic on canvas, 2017

[작품 11]은 타지마할 건축물을 모티브로 그렸다. 타지마할은 샤 자한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으로 순백의 대리석과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는 절대적인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 보는 이들에게 평온함과 감동을 주는 건축물이 탄생하는 모습을 본인의 표현 방식인 선, 면을 통해 표현해 보고자 했다.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타지마할의 넓은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 수평으로 긴 캔버스를 사용했고 화면에 1/3 정도의 하단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상단 부분에는 바이올렛(violet), 울트라마린 바이올렛(Ultramarine violet), 화이트(White) 색상을 혼합하여 붓으로 서로 교차하며 그라데이션을 줬고 하단 부분은 화이트(White) 색으로 여백을 두어 타지마할의 투명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무한한 공간을 상상하게 한다. 원래 타지마할 건축물이 순백의 색상인데 본인의 작품에서는 배경을 푸른 파스텔 빛을 사용하고 안에 건축물은 다양한 원색으로 표현해서 타지마할의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준다. 영롱한 푸른 배경 위에는 면은 건물의 기둥을 나타내었고 선은 건축의 골조로써 면들을 서로 연결해 조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개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타지마할을 재구성한 화면은 균형 있고 몽환적인 도시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한다.



[작품 12] LaLa, 72.5x52cm, acrylic on canvas, 2017

[작품 12]은 영화 라라랜드(LA LA Land)의 영화 속 한 장면을 모티브로 표현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별들의 도시 배경이 나오는 LALA Land에서 세바스찬과 미아가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보랏빛 하늘과 야경으로 잘 어울려지고 희망이 있는 도시 풍경이어서 작업으로 나타내었다.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늘과 지상에 있는 야경들을 구분하기 위해 화면에 1/3 정도의 하단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상단 부분에는 바이올렛(Violet) 으로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주었는데 위쪽은 블랙을 혼합해서 진한 바이올렛의 색상이 나오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청명한 바이올렛(Violet)이 나오게 칠해서 보랏빛으로 노을 지는 하늘을 표현했다. 테이핑으로 남겨둔 하단 부분은 맨 처음에 연보라(Light purple)로 하단 전체를 칠한 후 그 위에 울트라마린(Ultramarine violet)과 보라(Purple)색을 혼합하여 뺄것으로 지나간 흔적을 남기듯 수직 방향으로 칠한다. 이때 모든 면을 다 칠하는 것

이 아니라 처음 칠한 색면이 상단에 약간 보일 만큼 남겨두고 칠한다. 여백을 남겨둠으로써 공간감이 형성되고 깊은 야경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 후 물감이 마르기 전에 붓으로 화이트(White), 노란, 빨간색 물감을 화면에 점을 찍기도 하고 붓으로 쓸러내려 배경과 동화되어 불빛들을 형성하고 생동감 있는 야경 풍경이 만들어진다. 영화에서는 보랏빛 야경 앞에 세바스찬과 미아가 춤추고 있는데 본인은 두 인물을 기하학 면으로 나타내어 건물로 표현했다. 중심에 있는 직사각형은 세바스찬을 형상화한 것이다. 턱시도 색인 블랙(Black), 실버(Silver)의 무채색 톤을 사용했고 기대고 있는 면은 노란 드레스 입은 미아를 형상화한 것으로 강렬한 프라임리 옐로우(Primary yellow)로 칠했다. 두 개체가 서로 어울려 보이기 위해 철골 형상의 선을 그려 연결해서 조화롭게 나타내었다. 이렇게 라라랜드를 재구성하여 영화가 가진 특별한 색감을 더 강조하고 꿈의 도시인 황홀한 감정을 이루고자 한다.

3) 건물 안의 내면 구성

[작품 13, 14, 15, 16, 17, 18, 19] 들은 풍경이 어우러진 도시 공간보다 건물 자체에 집중해서 나타낸 작업이다.



[작품 13] Construction 1, 117x95cm, acrylic on canvas, 2016

[작품 14] Construction 4, 116x79.5cm, acrylic on canvas, 2017

[작품 13], [작품 14] 작품은 도시 풍경보다는 건물을 중심으로 나타내서 그 속에 있는 선과 면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리가 24시간 중 절반 이상은 생활하고 있는 건물의 공간 속을 건물 속의 책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빌딩과 비슷해서 책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표현했다. 책은 내가 표현하

고자 하는 도시 내면과도 관계가 있다. 겉으로 포장된 표지 안에 수많은 글자로 이루어진 세계가 들어있다. 화면에는 책으로 만든 건물이 자리 잡고, 책 속의 레이어는 건물 속의 골조로 튀어나와 나타내고 있다. 책 속에 골조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작업에 비해 선이 많이 들어가서 역동적이며 선들이 기하학 도형을 통과하고 연결하면서 복잡한 건축구조를 만들고 정지된 건물에 생동감을 넣는다.

[작품 13]은 선과 면을 활용하여 책과 고층빌딩과 결합한 형태를 연상해 화면 내부를 구성했다. 형태는 책이 쌓여진 모습이기도 하면서 건물이 공사 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도시의 내면을 나타내기 위해 책의 모습에서 겉표지는 그대로 두고 내용이 담긴 종이 면에 골조의 구조를 넣었다. 이 골조는 책의 레이어(Layer)이면서 도시를 선으로 단순화시킨 모습이다. 책 속에 있는 골조들은 실제 골조의 형상으로 보이기 위해 검정, 회색, 흰색 등의 무채색 계열로 선적표현을 했다. 건물에 있는 책표지의 기하학 면은 아래쪽의 색상은 무게감을 주기 위해 다크 네이비(Dark navy), 버건디(Burgundy), 딥 그린(Deep green) 색 등의 어두운 계열을 사용하였고 위쪽의 면은 카드뮴 레드(Cadmium red)나 아쿠아 그린(Aqua green)과 같은 밝은 색상으로 균형을 맞추어 칠했다.

[작품 14]는 고층빌딩이 늘어나면서 수직 상승하는 도시를 나타내었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작품 13]과 달리 수직적인 구도로 작품을 구상했다. 고층빌딩이 펼쳐지면서 압도감과 위엄감을 뽐내지만 무수한 선들이 면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형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작업이다. 그로 인해 낮설게 느껴졌던 고층빌딩들은 선의 표현으로 다리처럼 개체들을 이어주고 소통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건물의 색상도 개체들이 위로 뻗어 나가면서 희망적으로 느껴지기 위해 채도가 높은 밝은 색상을 사용했다.



[작품15] Between the walls 1, 33.4x24.2cm acrylic on canvas 2018

[작품16] Between the walls 2, 33.4x24.2cm acrylic on canvas 2018

[작품17] Between the walls 3, 33.4x24.2cm acrylic on canvas 2018

[작품18] Between the walls 4, 33.4x24.2cm acrylic on canvas 2018

[작품19] Between the walls 5, 33.4x24.2cm acrylic on canvas 2018

[작품15, 16, 17, 18, 19]은 획일화된 도시들이 속내는 개성 있고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건물을 통해 나타냈다. 화면의 벽 안에는 건물들이 끼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획일화된 사회 안에 갇힌 현대인을 암시하지만 채도가 높은 원색으로 표현하여 활기찬 도시 풍경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재기발랄한 건물 구조는 도시 속 사람들의 활기차고 희망이 담긴 내면을 나타내기도 한다. 단일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표현함으로써 여백 공간을 확장하여 색면을 주목하기도 한다. 프레임이 33.4x24.2cm 캔버스이지만 5개의 패널로 만들어서 나란히 작품을 놓으면 한 건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채도가 높은 색상의 벽들로 인해 생동감 넘치는 풍경효과를 만들어낸다.

Ⅲ. 결 론

이 논문은 2016년부터 제작되어 2018년 석사 청구전에 전시된 작품들을 분석한 글로써 현대 도시의 내면을 경험한 나의 태도를 밝히는 글이다. 논문을 통해 현대인이 갈망하는 도시환경을 나타내었고 도시를 이루는 주 매개체인 건축물 형상 속의 선과 색면을 통해 도시 내면을 연구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 공간과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장소에 대한 탐구이다. 안락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인들은 기술을 발달시켜 수많은 변화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효율과 속도만 중시했던 도시변화는 인간 소외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본인도 유년 시절과 비교해서 현대 사회의 획일화된 도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도시는 우리의 삶을 감싸고 거주공간으로서 생활을 지배하는 영역이 크다. 지금도 개발되고 있는 도시환경들은 우리 생활 영역으로 함께 할 것이고 본인은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환경을 찾고자 한다.

본인이 연구를 통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도시에 본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내면화시켜 조형적 방법으로 표현해 상실된 인간성 회복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본인은 현대 사회를 보여주는 주요 매개체가 도시에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했고 건축물에서 발견한 기하학적 구조를 작업으로 나타내었다. 건축물의 구조에서 주요 모티브를 차용했지만 최소한의 형태는 그대로 두어 균형은 유지했고 단순화시킨 선과 면, 기하학 형상들은 순수한 구조로서 도시의 내면의 본질을 지켜주고자 했다. 또한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기하학적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면서 실존의 건축물이 아닌 연출된 화면구성을 다양하게 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표현인 강한 색감으

로 단면화하여 채색함으로써 건물이 도식화되어 본인의 조형적 요소로 뒤바뀐다. 이를 통해 본인의 작품은 본인과 현대인들이 도시 속에서 받은 불안감과 외로움을 치유해주고 극복하는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작업을 전개해 나아가는데 있어 도시 구성형식과 재료 및 색채의 표현방법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더 깊이 할 것이다.

현재의 작업에서는 선과 색면으로 도시 공간을 구축하고, 정형적인 캔버스들 안에서 아크릴물감을 이용하였다. 또한 색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면이 매끄러운 캔버스와 유분이 없는 아크릴물감이 알맞을 것이라 생각하여 작업하고자 했다.

아쉬운 점은 본인의 심상을 표현하고 치유하기 위한 기하학적 형태나 색채에서 건조한 아크릴물감의 사용은 다른 이에게 차갑고 딱딱한 감정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색감을 높은 채도 위주로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선적인 선과 색면은 풍부한 감성표현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속적으로 화면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 기하학적 형상은 본인이 추구하는 중요한 조형 언어이기 때문에 구조를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곡선과 드로잉의 즉흥을 넣어 화면의 변화를 모색하고 색의 선택에서도 본인이 구현하려는 형상과 감성에 맞는 색채를 연구함과 동시에 보편적으로 관객에게 호감을 주는 색의 영역을 찾아 점차 발전된 도시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도시라는 공간이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현시대의 공간 속 내면을 한층 깊숙이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며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나아가 새로운 도시의 풍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네이버 지식백과, 그라데이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17811&cid=50335&categoryId=50335>
- 네이버 지식백과, 동피랑 마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91907&cid=40942&categoryId=38271>
- 네이버 블로그, 르꼬르뷔지에 스케치 습작에 쓰인 글,
blog.naver.com/kuje4989/140049861485
- 데이비드 A. 라우어, 「조형의 원리」 예경 , 1996
-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1996
- 에스더M. 스텐버그,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더퀘스트, 2013
-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예담, 2002, p.33
- 전해숙, 「몬드리안 그림에 있어서의 수직 수평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최인숙, 「(최인숙의 파리와 서울 사이)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하는 까닭」,
뉴스토마토, 2018년 7월3일
- 최태만, 「미술과 도시」 열화당, 1995
- Linda Holtzschue, 「색채의 이해, 제4판」 시그마프레스 , 2015

ABSTRACT

A Study on Formative Expressions of Inner Cities through Lines and Color Planes - Focusing on Researcher' s work -

Cho Seol Hwa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and described the contents and formative aspects of 'inner cities' , a theme of the writer' s pieces from 2016 to 2018, through formative backgrounds and processes.

The rapid growth of modern cities and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brought useful spaces and productive environments to modern people but could not prevent cities from becoming mechanized and uniform. In my case, the natural environment of my childhood neighborhood began to lose its old character and quickly become urbanized and it thus came to me as an unfamiliar and desolate landscape. The surrounding nature lost its environment friendly relationship, being neglected by the city, isolated and alone, and even now, it is gradually losing its place.

While the city, with its elements of solitude and anxiety, has negative aspects, it is a place created for human convenience and it is where we survive. In this

way, I feel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through the city and based on this, I visualize the properties and internal aspects of cities within screens into lines, planes, and colors to reflect my mentality. Also, I observe concepts that form as urban spaces and art meet, and I attempt to observe what psychological correlations exist as such work is realized into simplified forms and colors.

This study analyzed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mechanized and industrialized inner cities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tandardized cities in modern society and represented the spatial structure was represented as a process of combination and change to study the times and the inner world.

The goal of this lies in the examination of pieces that were produced to present possibilities for looking into one's own mind within it. Such piece analysis attempts to show spectators that work that formatively reconstructs cities can comfort the daunted mentalities of modern people living in cities and change cities into simple and bright landscapes.

It is hoped that through this study, people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think and sympathize with the various inner worlds of cities and not focus on the cold atmosphere of its buildings or its stiff visual external form.